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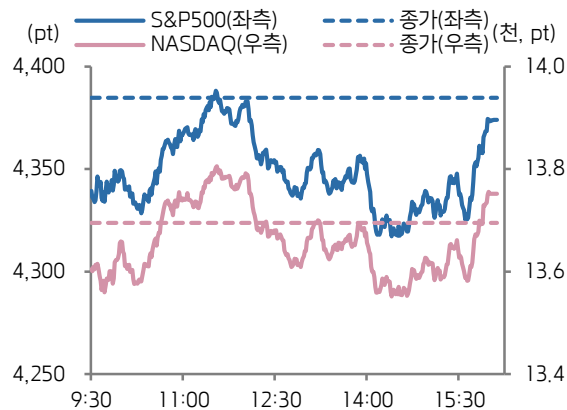
미 증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격화에 급락

미국 증시 리뷰

28 일 (월) 미국 증시는 주말 사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극대화해 하락. 주말간 키예프를 중심으로 교전 격화,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강화 등 소식들에 의해 부담을 받음. 특히 G7 국가들의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SWIFT 시스템 배제 결정, EU 의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 결정 여파로 루블화가 달러대비 30% 이상 급락하는 등 외환시간 변동성이 극대화됨. 이날 진행된 러시아-우크라이나 1 차 협상은 4~5 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것 외 합의된 게 없으며 증시에 실망감을 줌. S&P500 지수는 장중 -1.5%까지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장 막판 대형 기술주 중심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다우 -0.53%, S&P500 -0.25%, 나스닥 +0.41%, 러셀 2000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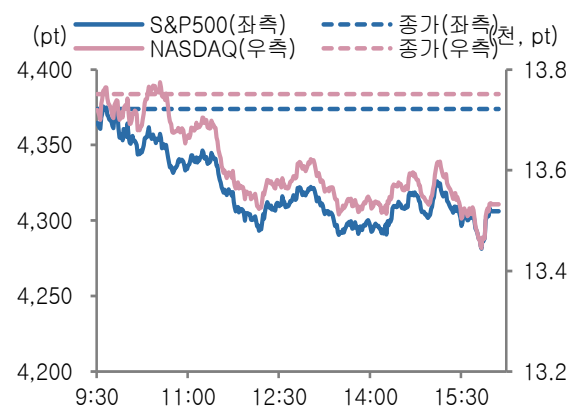
1 일 (화)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화로 급락. 오전 발표된 2월 ISM PMI는 58.6pt(예상 58.0pt, 전월 57.6pt)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와 서방국가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높임. IEA 31 개 산유국가들이 최소 6000 만 배럴을 비축유에서 방출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I 국제유가는 8%대 상승하면서 106달러를 상회. 미국 10년물 금리는 13bp 하락(다우 -1.76%, S&P500 -1.55%, 나스닥 -1.59%, 러셀 2000 -1.93%)

S&P500 & NASDAQ 일종 차트 (2월 28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S&P500 & NASDAQ 일종 차트 (3월 1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306.26	-1.55%	USD/KRW	1,199.79	-0.21%
NASDAQ	13,532.46	-1.59%	달러 지수	97.36	+0.67%
다우	33,294.95	-1.76%	EUR/USD	1.11	-0.81%
VIX	33.32	+10.51%	USD/CNH	6.32	+0.06%
러셀 2000	2,008.51	-1.93%	USD/JPY	114.86	-0.12%
필라. 반도체	3,304.85	-3.6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018.39	-1.64%	국고채 3년	2.245	+0.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685	+1.8bp
Eurostoxx50	3,765.85	-4.04%	미국 국채 2년	1.335	-9.8bp
MSCI 전세계 지수	698.02	-0.07%	미국 국채 10년	1.711	-11.5bp
MSCI DM 지수	2,977.95	-0.08%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71.31	-0.06%	WTI	105.22	+9.92%
MSCI 한국 ETF	71.49	-1.27%	금	1947.6	+2.4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3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8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06.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국내 증시 장중 예정된 바이든의 국정연설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 관련 뉴스 플로우
3. 한국 수출 및 미국 제조업 지수 호조가 만들어내는 지수 하방 경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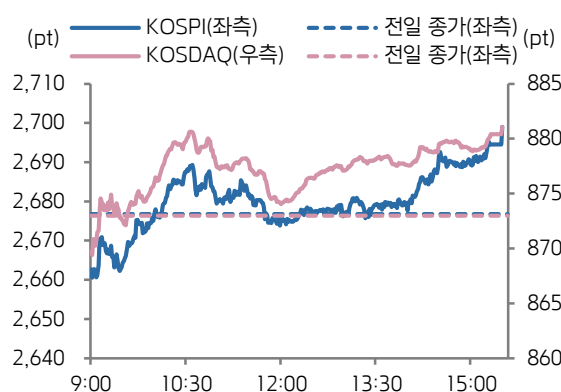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28 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회담은 입장 차이만 재확인 했을 뿐 협상의 진전은 없었던 상황. 이에 더해 러시아가 키예프 및 제 2 도시들을 추가 공습을 감행하면서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방국가 및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증시에 위험회피현상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WTI 도 장중 6% 넘게 급등하면서 100 달러를 상회하는 등 유가 포함 전반적인 상품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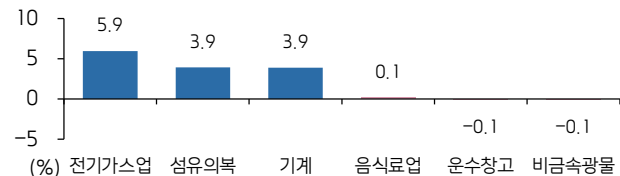
물론 국제에너지기구(IEA) 31 개 회원국들이 6,000 만배럴의 전략 비축유(총 15 억 배럴 중 4%) 방출했으나, 러시아산 에너지 수급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만큼, 유가 급등세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상품 가격 추가 강세 및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급등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연준의 3 월 50bp 금리인상 가능성은 아예 0%로 내려온 상황. 3 월 FOMC 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그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호전될 시에는 재차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그러나 일부 국지적인 교전이 지속되며 지정학적 갈등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 시 실제 50bp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금일 국내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에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장중에는 한국시간으로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바이든의 국정 연설 포함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플로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이나, 휴일 기간 중 발표된 한국의 2 월 수출 서프라이즈(20.6%YoY, 컨센 18.2%) 및 무역수지 흑자전환, 미국 2 월 ISM 제조업 지수(58.6, 컨센 58.1) 등 메인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은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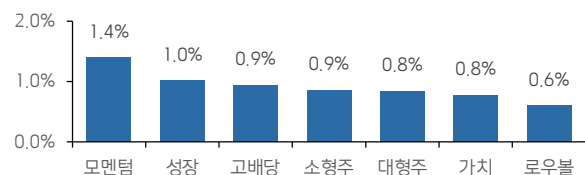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iwise, E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